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20 주차 (9:35~10:21)

(2015년 6월 7일 - 2015년 6월 13일)

(제3권 20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20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6 월 7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일)

오늘의 본문 (요 9:35~41)

35. 예수께서 저희가 그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9.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러 함이라 하시니
40.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4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거 있느니라

원문해석하기

-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를 밖으로 내어 쫓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ἤκουσεν Ἰησοῦς ὅτι ἐξέβαλον αὐτὸν ἔξω)
그리고 그를 발견했을 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εὖρων αὐτὸν εἶπεν·)
당신은 인자를 믿습니까? (σὺ πιστεύεις εἰς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 (36절) 그가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ἐκεῖνος καὶ εἶπεν·)
그가 누구입니까? 주여! 그를 믿습니다 (καὶ τίς ἐστίν, κύριε, ἵνα πιστεύσω εἰς αὐτόν;)
- (37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당신이 그를 보았습니다 (καὶ εἶδρακα αὐτόν)
당신과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καὶ ὁ λαλῶν μετὰ σοῦ ἐκεῖνός ἐστιν.)
- (38절)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ὁ δὲ ἄφη·)
제가 믿습니다. 주여! (πιστεύω, κύριε·)
그리고 그가 그에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καὶ προσεκύνησεν αὐτῷ.)
- (39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εἶπεν ὁ Ἰησοῦς·)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습니다 (εἰς κρίμα ἐγὼ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τοῦτον ἦλθον·)
그 결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이 장님이 될 것입니다
(ἵνα οἱ μὴ βλέποντες βλέπωσιν καὶ οἱ βλέποντες τυφλοὶ γένωνται.)
- (40절) 바리새인들 중 그와 함께 하던 자들이 이를 듣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ἤκουσαν ἐκ τῶν Φαρισαίων ταῦτα οἱ μετ' αὐτοῦ ὄντες καὶ εἶπον αὐτῷ·)
우리도 역시 장님이니까? (μὴ καὶ ἡμεῖς τυφλοὶ ἐσμεν;)
-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만약 당신이 장님이었다면 당신들은 죄가 없습니다 (εἰ τυφλοὶ ἦτε, οὐκ ἂν εἶχτε ἁμαρτίαν·)
그런데 지금 당신이 “우리는 본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νῦν δὲ λέγετε ὅτι βλέπομεν·)
당신들의 죄가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ἡ ἁμαρτία ὑμῶν μένει.)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5-37 절을 읽으십시오. 청년이 유대인들에 의해 밖으로 쫓겨났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인자를 믿습니까?”

청년: “그가 누구입니까? 주여! 그를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를 보았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청년은 눈을 뜨고 광명을 얻게 되었지만 공동체로부터는 쫓겨나 왕따를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눈을 뜬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가 눈을 뜬 사실 자체를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그 동안 자신들이 목숨처럼 지켜왔던 너무도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식일 준수를 위시한 종교적 계율과 전통을 모두 버려야 하는데 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고 그들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본래 장님이었다가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눈이 정상이었으나 일신상의 어떤 이유로 잠깐 장님으로 위장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하나만 공동체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왕따를 시키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지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 그는 그냥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선천적으로 장님이었던 자신이 눈을 뜨게 된 과정과 자신을 고쳐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을 갖고 용기있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용기로 인해 그는 결국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 정말 용기를 가지고 확신있게 증거하고 있나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고 있나요? 혹 주위 평판이 두려워서 비겁한 태도를 취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자신이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과 청년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상태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빛을 얻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그가 속했던 공동체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그에게 “당신은 인자를 믿습니까?”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알아보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너무도 확실한 체험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의지가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 청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였을까요?

믿음은 없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의 경험이든, 세계관의 변화이든 완전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완전하고 실질적 변화라는 것은 소위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진화론을 신봉하던 사람이 창조론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진화론적 사고 체계까지 변화되는 실질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청년은 더 이상 장님도 아니고 거지도 아닙니다. 눈을 떴으니 동냥으로 연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짓눌렀던 죄 의식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는 신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져다 주는 변화입니다.

38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이 그 청년을 고쳐준 장본인이라고 말씀하시자 청년은 그 앞에 바로 엎드려 고백합니다. 엎드려 경배를 했다는 말은 곧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경배의 모습은 바로 창조주의 위엄 앞에선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오직 주님 만이 높아지셔야 한다는 자기 고백이자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굴복되어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빛이 무엇인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무엇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구걸로 연명해왔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시는 로고스이시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드디어 참빛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우월해지고 이 세상 이치를 모두 다 아는 것 마냥 우쭐댁니다. 아마도 그것이 인지상정이겠지요.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우리는 시대를 제대로 분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는 우매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인간들끼리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전까지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어 그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까지는 인간들은 모두가 어두움과 빛을 구별하지 못하는 장님일 뿐이며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상태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학식과 명성과 부와 건강을 지니고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세상에서의 성취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낮아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히 낮아지셔서 낮은 자들을 찾아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애써 낮아지려 하지 않아도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깨달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알고 굴복했나요? 나의 눈을 밝게 해주신 그 주님에게 엎드려 경배했나요? 언제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간단하게 자신의 간증을 적어보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우리도 소경인가? (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 9:35~41)

35. 예수께서 저희가 그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9.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러 함이라 하시니
40.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4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거 있느니라

원문해석하기

-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를 밖으로 내어 쫓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Ἦκουσεν Ἰησοῦς ὅτι ἐξέβαλον αὐτὸν ἔξω)
그리고 그를 발견했을 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εὖρων αὐτὸν εἶπεν·)
당신은 인자를 믿습니까? (σὺ πιστεύεις εἰς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 (36절) 그가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ἐκεῖνος καὶ εἶπεν·)
그가 누구입니까? 주여! 그를 믿습니다 (καὶ τίς ἐστίν, κύριε, ἵνα πιστεύσω εἰς αὐτόν;)
- (37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당신이 그를 보았습니다 (καὶ εἶδον αὐτόν)
당신과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καὶ ὁ λαλῶν μετὰ σοῦ ἐκεῖνός ἐστιν.)
- (38절)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ὁ δὲ ἄφη·)
제가 믿습니다. 주여! (πιστεύω, κύριε·)
그리고 그가 그에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καὶ προσεκύνησεν αὐτῷ.)
- (39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εἶπεν ὁ Ἰησοῦς·)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습니다 (εἰς κρίμα ἐγὼ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τοῦτον ἦλθον·)
그 결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이 장님이 될 것입니다
(ἵνα οἱ μὴ βλέποντες βλέπωσιν καὶ οἱ βλέποντες τυφλοὶ γένωνται.)
- (40절) 바리새인들 중 그와 함께 하던 자들이 이를 듣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ἤκουσαν ἐκ τῶν Φαρισαίων ταῦτα οἱ μετ' αὐτοῦ ὄντες καὶ εἶπον αὐτῷ·)
우리도 역시 장님이니까? (μὴ καὶ ἡμεῖς τυφλοὶ ἐσμεν;)
-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만약 당신이 장님이었다면 당신들은 죄가 없습니다 (εἰ τυφλοὶ ἦτε, οὐκ ἂν εἶχτε ἁμαρτίαν·)
그런데 지금 당신이 “우리는 본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νῦν δὲ λέγετε ὅτι βλέπομεν·)
당신들의 죄가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ἡ ἁμαρτία ὑμῶν μένει.)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9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이 장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해석하기에 따라 논란거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는데 심판의 결과 진리를 모르던 소위 까막눈들은 눈을 뜨게 하셔서 진리를 밝히 알게 하시고, 반대로 자신들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안다고 거들먹거리며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진리의 문이 닫히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진리를 거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훼손하려 했던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 그들은 진리의 대적자로 살 수 밖에 없었기에 장님이 눈을 뜬 엄연한 기적조차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같은 해석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뜻을 세우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베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동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의지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본다고 하는 사람은 눈이 멀게 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눈먼 사람은 오히려 눈을 뜨게 하여 진리를 보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40 절을 읽으십시오. 바리새인들 중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질문합니다. “우리도 역시 장님입니까?” 이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장님이란 말입니까?’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이 장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즉각적 반응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주 빈정 상한 모양입니다. 그동안 앞도 못 보고 저주 받은 삶을 살았던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 광명을 찾고 앞을 보게 되었는데 오히려 밝히 본다고 생각하고 살아 온 자신들은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시니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¹⁵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 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¹⁶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

치리라¹⁷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¹⁸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계 3:15-18).

당시 라오디게아교회는 매우 부유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지진으로 인해 소아시아 지역이 모두 파괴되었고 라오디게아 지역도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복구를 위한 비용을 보조해 주려 했으나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피해를 복구했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또한 당시 라오디게아에는 의학, 특히 안과 의학이 발달하여 안약을 직접 만들어 공급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 곧 영적으로 풍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았고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실천하며 그 안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세리를 위시한 죄인들, 문둥병자처럼 사회에서 격리되고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그들의 잘못된 세계관에 엄청난 도전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고 있고 그것을 축복의 잣대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각종 중독자들을 보면서 그들과 다름에 감사하지는 않는지요? 그 모든 것이 아직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이 세상의 기준이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의 처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하지요.

42 절을 읽으십시오. 그렇다면 자신들이 장님이라는 말이나고 반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장님이었다면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εἰ τυφλοὶ ἦτε, οὐκ ἂν εἶχτε ἁμαρτίαν·)
그런데 지금 당신이 “우리는 본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νῦν δὲ λέγετε ὅτι βλέπομεν.)
당신들의 죄가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ἡ ἁμαρτία ὑμῶν μένει.)

당신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이 눈 먼 장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밝히 보게되는 경험을 하셨나요? 만약 그러한 체험이 없으시다면 당신은 아마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어떨런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양의 목자는 누구인가?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0:1~6)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3.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라 오되
5.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6.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Α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서 들어가는 자는
(ὁ μὴ εἰσερχόμενος διὰ τῆς θύρας εἰς τὴν αὐλήν τῶν προβάτων ἀλλὰ ἀναβαίνων ἀλλοτρίως)
그가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ἐκεῖνος κλέπτης ἐστὶν καὶ ληστής.)
- (2절) 문을 통해 들어가는 그가 양의 목자입니다 (ὁ δὲ εἰσερχόμενος διὰ τῆς θύρας ποιμὴν ἐστὶν τῶν προβάτων.)
- (3절)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τούτῳ ὁ θυρωρὸς ἀνοίγει)
그리고 양들은 그의 소리를 듣습니다 (καὶ τὰ πρόβατα τῆς φωνῆς αὐτοῦ ἀκούει)
그가 이름을 따라 그의 양들을 부르고 그들을 불러 냅니다
(καὶ τὰ ἴδια πρόβατα φωνεῖ κατ' ὄνομα καὶ ἐξάγει αὐτά.)
- (4절) 그의 것들을 모두 불렀을 때 (ὅταν τὰ ἴδια πάντα ἐκβάλῃ)
그가 그의 것들 앞으로 나갑니다 (ἔμπροσθεν αὐτῶν πορεύεται)
그의 양들이 그에게 따라 갑니다 (καὶ τὰ πρόβατα αὐτῷ ἀκολουθεῖ)
왜냐하면 그들이 그의 소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ὅτι οἶδασιν τὴν φωνὴν αὐτοῦ.)
- (5절) 그들은 다른 사람을 따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ἄλλοτρίῳ δὲ οὐ μὴ ἀκολουθήσουσιν.)
오히려 그로부터 도망할 것입니다 (ἀλλὰ φεύξονται ἀπ' αὐτοῦ.)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의 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οὐκ οἶδασιν τῶν ἄλλοτρίων τὴν φωνήν.)
-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Ταύτην τὴν παροιμίαν εἶπε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그들이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ἐκεῖνοι δὲ οὐκ ἔγνωσαν τίνα ἦν ἡ ἐλάλει αὐτοῖς.)

하나님의 말씀이해하기

10 장으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예수님은 양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0 장의 말씀이 9 장의 상황과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별개의 상황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9 장의 사건이 7 장부터 이어진 초막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10 장의 사건은 그로부터 3 개월 뒤인 수전절의 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22 절에 분명히 수전절이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떤 견해를 따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 명확한 시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은 학자들의 테이블 위로 던져 놓고 먼저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며 9 장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 성경이 쓰여질 때에는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읽으면 예수님이 9 장 41 절에 연이어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2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그가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는 그가 양의 목자입니다”(요 10:1~2)

여기서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등장할까요? ‘양의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 9 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난생 처음 빛을 보게 된 청년을 다그치던 유대인들이 그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증언하자 성전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그를 만나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는 그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이 바로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로 오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앞 못보는 장님이라고 질책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10 장 말씀은 이 상황 바로 뒤이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혼한 접속어 하나 없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9 장과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양의 우리는 무엇이며 도둑이며 강도는 누구를 의미하고 양의 목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34 장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 장 1 절~16 절을 보겠습니다(내용이 길지만 진정한 목자와 샅꾼 목자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²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³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⁴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⁵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⁶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멧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며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⁷ 그러므로 목자들이 여호와와 말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⁸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⁹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이 여호와와 말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¹⁰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¹¹ 나 주 여호와와 말씀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¹²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¹³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¹⁴ 좋은 풀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게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풀을 먹으리라¹⁵ 나 주 여호와와 말씀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¹⁶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겔 34:1-16).

위 글을 읽고 요한복음에서 ‘도적이요 강도’라고 표현된 삯꾼 목자의 특징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목자가 오셔서 양들을 위해 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진정한 목자에 의해 양무리 공동체가 회복되었을 때의 모습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적어보십시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전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호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정 이단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단들에 속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목자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처럼 그 공동체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올바른 진리 가운데에서 인도되고 있나요? 각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으실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목자는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 10:1~6)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3.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라 오되
5.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6.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Α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서 들어가는 자는
(ὁ μὴ εἰσερχόμενος διὰ τῆς θύρας εἰς τὴν αὐλήν τῶν προβάτων ἀλλὰ ἀναβαίνων ἀλλοτρίως)
그가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ἐκεῖνος κλέπτης ἐστὶν καὶ ληστής.)
- (2절) 문을 통해 들어가는 그가 양의 목자입니다 (ὁ δὲ εἰσερχόμενος διὰ τῆς θύρας ποιμὴν ἐστὶν τῶν προβάτων.)
- (3절)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τούτῳ ὁ θυρωρὸς ἀνοίγει)
그리고 양들은 그의 소리를 듣습니다 (καὶ τὰ πρόβατα τῆς φωνῆς αὐτοῦ ἀκούει)
그가 이름을 따라 그의 양들을 부르고 그들을 불러 냅니다
(καὶ τὰ ἴδια πρόβατα φωνεῖ κατ' ὄνομα καὶ ἐξάγει αὐτά.)
- (4절) 그의 것들을 모두 불렀을 때 (ὅταν τὰ ἴδια πάντα ἐκβάλῃ)
그가 그의 것들 앞으로 나갑니다 (ἔμπροσθεν αὐτῶν πορεύεται)
그의 양들이 그에게 따라 갑니다 (καὶ τὰ πρόβατα αὐτῷ ἀκολουθεῖ)
왜냐하면 그들이 그의 소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ὅτι οἶδασιν τὴν φωνὴν αὐτοῦ.)
- (5절) 그들은 다른 사람을 따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ἄλλοτρίῳ δὲ οὐ μὴ ἀκολουθήσουσιν.)
오히려 그로부터 도망할 것입니다 (ἀλλὰ φεύξονται ἀπ' αὐτοῦ.)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의 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οὐκ οἶδασιν τῶν ἄλλοτρίων τὴν φωνήν.)
-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Ταύτην τὴν παροιμίαν εἶπε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그들이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ἐκεῖνοι δὲ οὐκ ἔγνωσαν τίνα ἦν ἡ ἐλάλει αὐτοῖς.)

하나님의 말씀이해하기

3절을 읽으십시오. 진짜 목자가 오면 문지기는 양의 우리의 문을 열어줍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고 그 양들은 자신을 부르는 것을 알고 양의 주인에게로 나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지기는 고용된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을 빗대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도대체 문지기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양들과 그들의 주인인 목자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양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인이 불러 내어 푸른 초장으로 자신들을 이끌어 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는 몇가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양들은 목자가 자신들을 불러내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고 문지기가 그 문을 지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그 주인의 것입니다. 소유권이 주인인 목자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이름을 불러 밖으로 이끈다는 것은 곧 소유권이 그주인에게 있다는 선포인 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그의 편지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⁵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⁶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요일 4:4-6).

여기서 ‘말’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경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담겨진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 그것을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교훈쯤으로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나요?

이 말씀에 담긴 또 다른 신학적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주인이 부르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서 그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란 울타리에 의해 바깥 세상과 분리된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밖과 우리 안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이단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 세계의 유일무이한 정통 기독교는 개톨릭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마녀사냥이라는 미명아래 수많은 여인들을 불태워 죽였고, 모자라는 교회의 재정을 메우기 위해 천국의 열쇠를 면죄 부라는 이름으로 팔았던 사람들이 바로 카톨릭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평신도들에게 성경은 금

서 목록 1 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기름부음을 받은 신부들의 입을 통해서만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전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사정은 어떠한가요? 교회에는 나가지만 성경책을 읽고 고민하고 그것과 씨름하는 성도들은 극히 드문 편입니다. 주일날 강대상에서 목사에 의해 ‘해석되어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앙 생활을 메우려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좋은 신자이고, 봉사를 많이 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지만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지요.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 장 10 절~17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0 너희 소돔의 관원들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4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4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4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증거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44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45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46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47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사 1:10-17).

여기서 소돔 관원, 고모라 백성은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관원들과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지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아브라함 당시 멸망해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이런 행태를 보입니다. 그들은 헌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 안에 있지도 진리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듣는다는 것은 진리안에 거하며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진리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교훈이나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늘의 참된 진리를 온전히 알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요. 각자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그 음성이 나를 부르는 음성으로 들리는지 아니면 인간의 소리요 인간의 교훈으로 들리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양들은 자신의 목자를 따른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 10:1~6)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3.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라 오되
5.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6.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Α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서 들어가는 자는
(ὁ μὴ εἰσερχόμενος διὰ τῆς θύρας εἰς τὴν αὐλήν τῶν προβάτων ἀλλὰ ἀναβαίνων ἀλλοχόθεν)
그가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ἐκεῖνος κλέπτης ἐστὶν καὶ ληστής.)
- (2절) 문을 통해 들어가는 그가 양의 목자입니다 (ὁ δὲ εἰσερχόμενος διὰ τῆς θύρας ποιμὴν ἐστὶν τῶν προβάτων.)
- (3절)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τούτῳ ὁ θυρωρὸς ἀνοίγει)
그리고 양들은 그의 소리를 듣습니다 (καὶ τὰ πρόβατα τῆς φωνῆς αὐτοῦ ἀκούει)
그가 이름을 따라 그의 양들을 부르고 그들을 불러 냅니다
(καὶ τὰ ἴδια πρόβατα φωνεῖ κατ' ὄνομα καὶ ἐξάγει αὐτά.)
- (4절) 그의 것들을 모두 불렀을 때 (ὅταν τὰ ἴδια πάντα ἐκβάλῃ)
그가 그의 것들 앞으로 나갑니다 (ἔμπροσθεν αὐτῶν πορεύεται)
그의 양들이 그에게 따라 갑니다 (καὶ τὰ πρόβατα αὐτῷ ἀκολουθεῖ)
왜냐하면 그들이 그의 소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ὅτι οἶδασιν τὴν φωνὴν αὐτοῦ.)
- (5절) 그들은 다른 사람을 따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ἄλλοτρίῳ δὲ οὐ μὴ ἀκολουθήσουσιν.)
오히려 그로부터 도망할 것입니다 (ἀλλὰ φεύξονται ἀπ' αὐτοῦ.)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의 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οὐκ οἶδασιν τῶν ἄλλοτρίων τὴν φωνήν.)
-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Ταύτην τὴν παροιμίαν εἶπε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그들이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ἐκεῖνοι δὲ οὐκ ἔγνωσαν τίνα ἦν ἡ ἐλάλει αὐτοῖς.)

하나님의 말씀이해하기

4~6 절을 읽으십시오. 양들 이름을 모두 부르고 난 후 목자는 양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어 냅니다. 그러면 양들은 모두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먼저 6장 19 절, 6장 44-45 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요 6:39).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요 6:45).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은 예수님이 부르자 그 음성을 금방 알아듣고는 그 앞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동안 예수님께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랬을 것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이들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양들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있던 양들을 처음으로 불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전부터 서로 친했다거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어떻게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었을까요?

힌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앞으로 그들을 보내신다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알아 진리를 따르며 진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고 진리를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 장 14 절~17 절, 25 절~26 절을 읽겠습니다.

“¹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¹⁷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6-17).

“²⁵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²⁶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5-26).

이 말씀에 따르면 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나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에게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은 누구의 주도로 발생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나의 의지나 믿음인가요? 아니면 성령님의 이끄심인가요?

5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그들 즉, 우리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면 당연히 비진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진리만 따르게 되어 있지요.

문제는 오늘날과 같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 해버리는 세상의 논리로 인해 기독교가 추구하는 절대 진리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고립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30여년전 생겨난 신자유주의와 함께 교회 깊숙이까지 들어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리인 것처럼 믿고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세상의 지식과 이 땅의 가치를 따른다는 말은 그만큼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다는 방증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은 다른 사람을 따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로부터 도망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비진리를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동사는 모두 미래 서술형인데 둘 모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않고 그사람들로부터 도망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그사람의 말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익숙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비진리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비진리는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간의 논리이고 이 세상에 뿌리를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세상의 말이 그들에게 매우 어색하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세상의 변영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도덕을 잘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들은 아주 쉽게 분별이 됩니다. 물론 진리에 속한 사람에게 그렇다는 말입니다.

6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속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 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깨우쳐 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리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에서 운행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그 양의 무리가 아니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나는 양의 문이라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 10:7~21)

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 삯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13.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 또 이 우리에게 듣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9.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20.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21.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원문해석하기

- (7절)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πάλιν ὁ Ἰησοῦς·)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내가 양의 문입니다 (ὅτι ἐγὼ εἰμι ἡ θύρα τῶν προβάτων.)
- (8절) 나의 앞에 왔던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πάντες ὅσοι ἦλθον [πρὸ ἐμοῦ] κλέπτει εἰσὶν καὶ λησταί.)
그러나 그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ἀλλ' οὐκ ἤκουσαν αὐτῶν τὰ πρόβατα.)
- (9절) 내가 그 문입니다 (ἐγὼ εἰμι ἡ θύρα·)
나를 통하여 만약 어떤 이가 들어 오면 (δι' ἐμοῦ ἐάν τις εἰσέλθῃ)
그는 [나를 통하여] 구원될 것입니다 (σωθήσεται)
그리고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를 통하여] 나가며 [나를 통하여] 풀밭을 발견할 것입니다
(καὶ εἰσελεύσεται καὶ ἐξελεύσεται καὶ νομὴν εὕρήσει.)
- (10절) 도둑은 만약 그가 훔치고 도륙하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오지 않습니다
(ὁ κλέπτης οὐκ ἔρχεται εἰ μὴ ἵνα κλέψῃ καὶ θύσῃ καὶ ἀπολέσῃ·)

- 나는 그들(양들)이 생명을 갖도록 하고 넘치게 갖도록 하기 위해 왔습니다
(ἐγὼ ἦλθον ἵνα ζωὴν ἔχωσιν καὶ περισσὸν ἔχωσιν.)
- (11절)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Εγὼ εἰμι ὁ ποιμὴν ὁ καλός)
선한 목자는 자신의 영혼을 그의 양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위치시킵니다
(ὁ ποιμὴν ὁ καλὸς τὴν ψυχὴν αὐτοῦ τίθησιν ὑπὲρ τῶν προβάτων.)
- (12절) 고용된 사람인 그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ὁ μισθωτὸς καὶ οὐκ ὢν ποιμὴν)
자신의 양이 아닙니다 (οὐ οὐκ ἔστιν τὰ πρόβατα ἴδια)
그가 다가 오는 늑대를 봅니다 (θεωρεῖ τὸν λύκον ἐρχόμενον)
그러자 그는 양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καὶ ἀφίησιν τὰ πρόβατα καὶ φεύγει)
그 늑대는 그들[양들]을 사로잡고 흩어지게 합니다 (-καὶ ὁ λύκος ἀρπάζει αὐτὰ καὶ σκορπίζει-)
- (13절) 왜냐하면 그가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 양들이 그에게 상관없이 없기 때문입니다
(ὅτι μισθωτὸς ἔστιν καὶ οὐ μέλει αὐτῷ περὶ τῶν προβάτων.)
- (14절)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Εγὼ εἰμι ὁ ποιμὴν ὁ καλός)
나는 나의 것들[양들]을 알고 나의 것들[양들]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καὶ γινώσκω τὰ ἐμὰ καὶ γινώσκουσί με τὰ ἐμὰ.)
- (15절) 이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역시 아버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καθὼς γινώσκει με ὁ πατήρ καὶ γὼ γινώσκω τὸν πατέρα.)
나는 나의 영혼을 그 양들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위치시킵니다
καὶ τὴν ψυχὴν μου τίθημι ὑπὲρ τῶν προβάτων.
- (16절) 그리고 나는 이 우리 중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καὶ ἄλλα πρόβατα ἔχω ἃ οὐκ ἔστιν ἐκ τῆς αὐλῆς ταύτης.)
내가 그들을 반드시 인도해야 합니다 (καὶ κεῖνα δεῖ με ἀγαγεῖν)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καὶ τῆς φωνῆς μου ἀκούσουσιν.)
그리고 한무리가 될 것이고 한 목자가 될 것입니다 (καὶ γενήσονται μία ποίμνη, εἷς ποιμὴν.)
- (17절) 이 때문에 (Διὰ τοῦτο)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με ὁ πατήρ ἀγαπᾷ)
왜냐하면 내가 나의 영혼을 내어 내어 놓기 때문입니다 (ὅτι ἐγὼ τίθημι τὴν ψυχὴν μου.)
그 결과 나는 그것[나의 영혼]을 받을 것입니다 (ἵνα πάλιν λάβω αὐτήν.)
- (18절) 아무도 그것을 나로부터 빼앗지 않습니다 (οὐδεὶς αἶρει αὐτήν ἅπ' ἐμοῦ),
그러나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그것을 내어 놓습니다 (ἀλλ' ἐγὼ τίθημι αὐτήν ἅπ' ἐμαυτοῦ).
나는 그것을 내어 놓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ἐξουσίαν ἔχω θεῖναι αὐτήν.)
나는 그것을 다시 받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καὶ ἐξουσίαν ἔχω πάλιν λαβεῖν αὐτήν.)
내가 이 명령을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았습시다 (ταύτην τὴν ἐντολὴν ἔλαβον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 (19절) 이 말씀으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Σχίσμα πάλιν ἐγένετο ἐν 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διὰ τοὺς λόγους τούτους.)
- (20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δὲ πολλοὶ ἐξ αὐτῶν.)
그가 악한 영을 가지고 있고 그가 미쳤습니다 (δαμόνιον ἔχει καὶ μαίνεται.)
왜 그로부터 듣습니까? (τί αὐτοῦ ἀκούετε.)
- (21절) 다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ἄλλοι ἔλεγον.)
이 말들은 악한 영에 들린 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ταῦτα τὰ ῥήματα οὐκ ἔστιν δαμονιζομένου.)
악한 영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지요? (μὴ δαμόνιον δύναται τυφλῶν ὀφθαλμοὺς ἀνοῖξαι.)

하나님의 말씀이해하기

위 말씀은 길게 이어진 예수님의 가르침과(7~17 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18~21 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 자신은 양의 문이자 선한 목자임을 설명하시고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재차 설명하십니다.

7~10 절을 읽겠습니다. 7 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일컬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2~3 절에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이고 문지기가 있어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 준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밝히십니다. 그리고 11 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문이자 목자인 셈입니다. 양들은 예수님에 의해 보호를 받고 예수님에 의해 인도를 받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7 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1~5 절까지의 비유를 풀이한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7 절 이후 시작되는 말씀도 비유의 풀이라기 보다는 비유의 연속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만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 절의 비유에서는 문지기, 문, 목자가 서로 다른 독립적 존재였는데 여기서는 문지기는 없고 문이 목자이신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무턱대고 예수님이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면 양의 문인 거라고 우기는 것은 성경을 읽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일단 문, 문지기, 목자의 구분이 사라지고 양의 문이 곧 자신이라고 한다면 문지기의 역할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뒤엎는 격이 되므로 이 문제는 조금 고민을 해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비유에서 양에 해당되는 자가 누구인지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양은 다름아닌 진리를 아는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양의 입장에서 이 비유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양은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양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거나 어떤 행동을 능동적으로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양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이끌려 풀밭을 찾기 위해서나 또는 외부의 적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이 튼튼해야 하고 또 목자가 철저하게 보호해 줘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문, 문지기, 목자는 모두 예수님의 역할로 보아야 하며 하나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1~5 절에서는 그것을 분리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통합하여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준비해오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구속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

님의 사역입니다.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 성취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기로 선택된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가 때가 이르러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양들의 보호자요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¹⁹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안에 처한 것이며 ²⁰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일 5:18-20).

여기서 하나님께서로서 나신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히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진리를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온전히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그리스도 인이라면 누구나 안심이 되어야 합니다. 설령 자신이 실수를 하고,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 올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우리의 구속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³찬송하리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⁴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⁵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⁶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⁷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⁸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⁹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¹⁰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¹¹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¹²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¹³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¹⁴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3-14).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그 문으로 당신이 보호되고 있으며, 그 문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그 구속 사역을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실행하셨다는 사실을 접할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생각하며 그 동안 당신이 받아온,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해 간단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 10:7~21)

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 삯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13.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 또 이 우리에게 듣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9.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20.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21.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원문해석하기

- (7절)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πάλιν ὁ Ἰησοῦς·)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내가 양의 문입니다 (ὅτι ἐγὼ εἰμι ἡ θύρα τῶν προβάτων.)
- (8절) 나의 앞에 왔던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πάντες ὅσοι ἦλθον [πρὸ ἐμοῦ] κλέπτει εἰσὶν καὶ λησταί.)
그러나 그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않았습니니다 (ἀλλ' οὐκ ἤκουσαν αὐτῶν τὰ πρόβατα.)
- (9절) 내가 그 문입니다 (ἐγὼ εἰμι ἡ θύρα·)
나를 통하여 만약 어떤 이가 들어 오면 (δι' ἐμοῦ ἐάν τις εἰσέλθῃ)
그는 [나를 통하여] 구원될 것입니다 (σωθήσεται)
그리고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를 통하여] 나가며 [나를 통하여] 풀밭을 발견할 것입니다
(καὶ εἰσελεύσεται καὶ ἐξελεύσεται καὶ νομὴν εὕρησει.)
- (10절) 도둑은 만약 그가 훔치고 도륙하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오지 않습니다
(ὁ κλέπτης οὐκ ἔρχεται εἰ μὴ ἵνα κλέψῃ καὶ θύσῃ καὶ ἀπολέσῃ·)

- 나는 그들(양들)이 생명을 갖도록 하고 넘치게 갖도록 하기 위해 왔습니다
(ἐγὼ ἦλθον ἵνα ζωὴν ἔχωσιν καὶ περισσὸν ἔχωσιν.)
- (11절)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Εγὼ εἰμι ὁ ποιμὴν ὁ καλός)
선한 목자는 자신의 영혼을 그의 양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위치시킵니다
(ὁ ποιμὴν ὁ καλὸς τὴν ψυχὴν αὐτοῦ τίθησιν ὑπὲρ τῶν προβάτων.)
- (12절) 고용된 사람인 그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ὁ μισθωτὸς καὶ οὐκ ὢν ποιμὴν)
자신의 양이 아닙니다 (οὐ οὐκ ἔστιν τὰ πρόβατα ἴδια)
그가 다가 오는 늑대를 봅니다 (θεωρεῖ τὸν λύκον ἐρχόμενον)
그러자 그는 양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καὶ ἀφίησιν τὰ πρόβατα καὶ φεύγει)
그 늑대는 그들[양들]을 사로잡고 흩어지게 합니다 (-καὶ ὁ λύκος ἀρπάζει αὐτὰ καὶ σκορπίζει-)
- (13절) 왜냐하면 그가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 양들이 그에게 상관없이 없기 때문입니다
(ὅτι μισθωτὸς ἔστιν καὶ οὐ μέλει αὐτῷ περὶ τῶν προβάτων.)
- (14절)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Εγὼ εἰμι ὁ ποιμὴν ὁ καλός)
나는 나의 것들[양들]을 알고 나의 것들[양들]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καὶ γινώσκω τὰ ἐμά καὶ γινώσκουσί με τὰ ἐμά.)
- (15절) 이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역시 아버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καθὼς γινώσκει με ὁ πατὴρ καὶ γὼ γινώσκω τὸν πατέρα.)
나는 나의 영혼을 그 양들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위치시킵니다
καὶ τὴν ψυχὴν μου τίθημι ὑπὲρ τῶν προβάτων.
- (16절) 그리고 나는 이 우리 중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καὶ ἄλλα πρόβατα ἔχω ἃ οὐκ ἔστιν ἐκ τῆς αὐλῆς ταύτης.)
내가 그들을 반드시 인도해야 합니다 (καὶ κεῖνα δεῖ με ἀγαγεῖν)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καὶ τῆς φωνῆς μου ἀκούσουσιν.)
그리고 한무리가 될 것이고 한 목자가 될 것입니다 (καὶ γενήσονται μία ποίμνη, εἷς ποιμὴν.)
- (17절) 이 때문에 (Διὰ τοῦτο)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με ὁ πατὴρ ἀγαπᾷ)
왜냐하면 내가 나의 영혼을 내어 내어 놓기 때문입니다 (ὅτι ἐγὼ τίθημι τὴν ψυχὴν μου.)
그 결과 나는 그것[나의 영혼]을 받을 것입니다 (ἵνα πάλιν λάβω αὐτήν.)
- (18절) 아무도 그것을 나로부터 빼앗지 않습니다 (οὐδεὶς αἶρει αὐτήν ἅπ' ἐμοῦ),
그러나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그것을 내어 놓습니다 (ἀλλ' ἐγὼ τίθημι αὐτήν ἅπ' ἐμαυτοῦ).
나는 그것을 내어 놓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ἐξουσίαν ἔχω θεῖναι αὐτήν.)
나는 그것을 다시 받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καὶ ἐξουσίαν ἔχω πάλιν λαβεῖν αὐτήν.)
내가 이 명령을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았습시다 (ταύτην τὴν ἐντολὴν ἔλαβον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 (19절) 이 말씀으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Σχίσμα πάλιν ἐγένετο ἐν 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διὰ τοὺς λόγους τούτους.)
- (20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δὲ πολλοὶ ἐξ αὐτῶν.)
그가 악한 영을 가지고 있고 그가 미쳤습니다 (δαμόνιον ἔχει καὶ μαίνεται.)
왜 그로부터 듣습니까? (τί αὐτοῦ ἀκούετε.)
- (21절) 다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ἄλλοι ἔλεγον.)
이 말들은 악한 영에 들린 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ταῦτα τὰ ῥήματα οὐκ ἔστιν δαμονιζομένου.)
악한 영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지요? (μὴ δαμόνιον δύναται τυφλῶν ὀφθαλμοὺς ἀνοῖξαι.)

하나님의 말씀이해하기

11~13 절을 읽으십시오. “나는 양의 문입니다”라는 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말을 11 절과 14 절에서 두 번 연속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선한 목자의 조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함의 조건과는 다르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선함의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의 영혼을 그의 양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위치시킵니다.” 한글 성경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위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후페르’ (ὕπερ)는 단순히 누구를 위하여가 아니라 서있는 위치를 서로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후페르 다음에 genitive(일반적으로는 소유격으로 생각함)가 오면 위치 교환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즉, 양들이 있던 자리에 선한 목자가 위치하고 선한 목자가 있던 곳에 양들이 서게 되는 것이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이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끊으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끊긴 상태를 ‘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여 이런 저런 잘못을 한 것, 즉 율법을 어긴 것도 죄이지만 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설령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일, 옳은 일만 하고 산다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일 뿐인 것이지요.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가 멀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이 내려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죽을 자리에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들이 서 있던 진노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서 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는 경고대로 그 자리로 내리쳐졌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인간들이 위치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자리에서 계시던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신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논의를 위해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만 들여 보겠습니다. 이 우주에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이 단 둘만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지요. 한 명은 예수님이요 한 명은 나 자신(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검은 옷을 입고 왼편으로 걷고 있고 예수님은 하얀 옷을 입고 오른편 길로 걷고 있다고 가정해 보지요. 걷고 있던 도중에 예수님이 당신에게 옷을 바꾸어 입고 걷고 있는 위치도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신은 당황할 것입니다. 그냥 불편함 없이 살고 있고, 더군다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기쁘게 자리도 바꾸고 옷도 바꾸어 입자고 하시니 당황할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검은 옷을 입고 왼편으로 걷고 있는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려고 한다. 그러니 나와 옷을 바꾸어 입고 자리도 바꾸자!” 당신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양심이고 뭐고,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선뜻 옷을 벗어 드리고 덤석 예수님의 옷을 받아 입고 예수님을 당신이 있던 그 자리로 잡아 당겨서 자리를 바꿀 건가요? 아니면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제안하신 것이니 어쩔 수 없이 바꾸겠다고 말할 건가요? 당신은 아마도 엄청나게 망설일 것입니다. 더구나 양심적인 분이라면, 자신이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면 절대로 예수

님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제 문제는 제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극구 사양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뜻대로 옷을 바꾸어 입으셨고 자리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여지없이 예수님에게 떨어졌지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염치없고 송구스러운 짓을 한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옷이 아닌 예수로 옷입고 나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신앙이지요. 이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내세울 수 있단 말인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옷을 바꾸어 입으셨나요? 그리고 그가 걸으신 그 길을 묵묵히 걷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복음에 빛진 자, 그것도 평생을 목숨바쳐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만 복음의 빛을 졌을까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없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당신이 서 있던 그 자리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더 이상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일부를 읽다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자각했고,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가 깨달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¹¹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¹²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¹³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¹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1-14).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